‘잇몸 야구’로 초반 위기 넘기는 KIA

마운드에 윤중현·유승철
타석에선 류지혁·고종욱
소금같은 활약 팀 승리 견인

윤중현

유승철

류지혁

고종욱

KIA 타이거즈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 ‘잇몸’들이 초반 싸움을 이끌고 있다.

시범경기 공동 1위 KIA는 기복 많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수비가 흔들리면서 12일 경기까지 무려 16개의 실책을 쏟아냈고, ‘해줘야 할 선수’들의 부진에 매일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선빈과 박찬호가 각각 3개와 5개의 실책을 기록했고, 실수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타석에서는 1할 타자가 즐비하다. 김선빈(0.194), 최형우(0.080), 소크라테스(0.147)의 방망이도 무디다.

선발진도 이닝이 부족하다. 첫 등판에서 4이닝을 소화했던 이의리가 12일 롯데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이닝에 그치는 등 공·수·주에서 마음과 다른 시즌이 전개되고 있다.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서도 KIA는 12일 롯데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4승째를 기록했다. ‘잇몸’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마운드에서는 윤중현이 분투하고 있다.

이날 이의리가 3회를 끝으로 조기 강판되면서 윤중현이 바로 마운드에 올랐다. 윤중현은 3이닝을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허리 싸움을 벌여줬다.

윤중현에 이어 4-5로 뒤진 7회에는 유승철이 나와 1이닝을 잘 막아주면서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선발의 조기 강판에도 불펜진이 역할을 해주면서 8회말 기회가 왔고 KIA는 6-5로 승부를 뒤집었다.

윤중현은 첫 등판부터 ‘마당쇠’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LG전에서 션 놀린이 김현수의 타구에 팔꿈치를 맞자, 윤중현이 급히 출격하는 등 12일 경기까지 4경기에서 8.2이닝을 책임졌다.

유승철도 4번의 등판에서 5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선발 후보였던 윤중현과 유승철은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 선발진 위기 상황에서 달려 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승철이 2승, 윤중현이 1승을 기록하고 있다.

타석에서는 류지혁과 고종욱에 눈길이 쏠린다. 벤치에서 때를 노리는 두 사람은 그라운드 위기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류지혁은 올 시즌 첫 결승타 주인공이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 실책을 기록한 신인 김도영을 대신해 류지혁이 대수비로 투입됐다. 류지혁은 이후 2-3으로 뒤진 8회 1사 2·3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가 4-3 역전극을 만드는 중전안타를 때려냈다.

류지혁은 7일에는 1회초 박찬호가 연속 실책으로 교체되자 1회말 톱타자로 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내야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타격에서도 집중력을 보여주는 류지혁은 덕아웃에서도 후배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적생’ 고종욱도 12일 주인공이 됐다. 긴박한 상황에서 대타로 투입되는 그는 4-5로 뒤진 8회 2사 1·2루에서 우중간을 갈랐다.

넉넉한 타구를 만들어주면서 2루에 있던 김석환은 물론 1루에 있던 포수 한승택까지 홈에 들어왔고, KIA는 6-5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세 번째 선발 출장에 나선 포수 한승택도 온몸으로 이의리의 공을 막아내고, 타석에서는 3점포를 날리는 등 4타점을 올렸다. 또 고종욱의 2루타 때 전력 질주를 하면서 승부를 뒤집는 득점도 만들어냈다.

김종국 감독은 13일 롯데전에 앞서 “윤중현, 유승철이 시범경기 때부터 많이 던지고, 길게 던지는 대비를 했다. 윤중현의 호투가 역전승의 계기가 됐다”며 “어제 자주 출장 안 했던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 한승택, 이우성, 고종욱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다. 소금 같은 선수들이다”고 언급했다.

소금들의 활약이 반갑지만 ‘해줘야 할 선수’들의 상승세가 간절하다. 김종국 감독은 ‘인내’로 4월을 지켜볼 계획이다.

김 감독은 “스타팅 나가는 선수들에게 큰일이 없으면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수들도 로테이션상으로 지금체제를 유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부상으로 인한 엔트리 변동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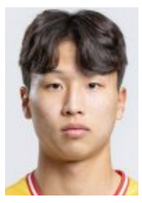
전날 공·수에서 맹활약한 김호령이 내복사근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대신 불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완 김재열이 콜업됐다.

역시 내복사근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임기영은 8일 NC전에 이어 13일 KT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와 4이닝(52구) 3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등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35㎞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 역전 3점 홈런 ‘쾅’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회 말 ‘3점’ 홈런을 날린 뒤 배트를 던지고 있다. 최근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한 최지만의 활약에 힘입어 탬파베이는 오클랜드를 5-3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광주FC 엄지성·이으뜸·안영규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11


엄지성

이으뜸

안영규

4연승을 달린 광주FC에서 3명의 베스트11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10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엄지성(FW), 이으뜸(MF), 안영규(DF)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엄지성은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옐로더비’에서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8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이으뜸은 안영규의 헤더를 도우면서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했다. 아쉽게도 비디오 판독 끝에 노골이 선언된 허율, 김현훈의 헤더의 시작점에도 이으뜸이 있었다.

‘주장’ 안영규는 후반 30분 앞선 오프사이드 상황의 아쉬움을 달래는 헤더를 성공시켰다.

광주는 안영규의 골을 잘 지키면서 3년 만에 전개된 전남과의 맞대결에서 1-0, 4연승에 성공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7승 2패·승점 21)는 FC안양(5승 2무 2패·승점 17)을 2-0로 꺾은 부천FC(6승 2무 1패·승점 20)의 추격을 따돌리고 1점차 선두를 유지했다.

10라운드 MVP는 대전하나시티즌 조유민의 차지가 됐다.

조유민은 지난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대전은 이날 전반 7분, 전반 28분에 기록된 조유민의 골로 초반 흐름을 주도했지만, 서울이랜드가 전반 종료 직전 맞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 경기는 10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베스트 팀은 부천이다. 부천은 지난 10일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었다.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11

▲MVP : 조유민(대전) ▲FW: 엄지성(광주), 박창준(부천), 윤민호(김포) ▲MF: 이으뜸(광주), 임덕근(대전), 이진현(대전), 한지호(부천) ▲DF: 안영규(광주), 이용혁(부천), 조유민 ▲GK: 최철원(부천) ▲베스트 매치: 대전(2) vs (1)서울E ▲베스트 팀: 부천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첼시 꺾고 UEFA 챔스 4강 ‘골인’
‘노란 잠수함’ 비야레알, 거함 뮌헨 격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첼시(잉글랜드)에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끌려간 연장전에서 승리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1-2022 UCL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첼시와 후반 45분까지 1·2차전 합계 4-4로 비긴 뒤 이어진 연장전에서 카림 벤제마의 결승 골을 앞세워 합계 5-4로 이겼다.

원정 1차전에서 3-1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의 대반격에 역전패를 당할 뻔했으나 극적인 승리로 2시즌 연속 UCL 4강행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엔 리버풀(잉글랜드)을 꺾고 올라간 4강에서 첼시에 덜미를 잡혀 탈락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의 8강전 승자와 결승행을 다툰다.

뮌헨은 1차전 0-1 패배 뒤 이날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1-1로 비겼으나 합계 1-2로 뒤져 고배를 들었다. 2019-2020시즌 우승 이후 2시즌 연속 8강 탈락이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비야레알은 2005-2006시즌 이후 16년 만에 UCL 4강에 진입하는 기쁨을 누렸다.

당시 아스널(잉글랜드)에 막혀 결승까진 오르지 못했던 비야레알은 벤피카(포르투갈)-리버풀의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1차전 때 21차례의 슛이 모두 무산돼 UCL에서 31경기 만에 무득점에 그쳤던 뮌헨은 안방에서도 한참 골 가뭄에 시달리다 후반 7분 ‘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의 득점포에 힘입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후반 43분 제라르 모레노의 크로스에 이은 새뮤얼 추쿠에제의 왼발 슛이 들어가며 비야레알이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평창 여자 500m 금’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고다이라 은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상화(33·은퇴)와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고다이라 나오(36)가 은퇴를 선언했다.

고다이라는 12일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월에 열리는 전일본선수권대회 여자 500m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일본선수권대회를 은퇴 대회로 결정한 건 개최지가 (고향인) 나가노이기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나가노에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고다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은퇴 이후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스포츠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다이라는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상 최고의 여자 단거리 선수로 꼽힌다.

국제대회 여자 500m 25회 연속 우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우승 등 찬란한 업적을 쌓으며 이름을 날렸다.

고다이라는 무엇보다 이상화와 쌓은 우정으로 한일 양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두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500m 레이스 전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지만, 경기 직후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전해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연합뉴스